



## 시론

정 경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며칠 전 한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서재필 언론 문화상 수상작으로 '울지마 톤즈'가 선정됐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의사이자 신부이신 한 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선교와 의료 뿐 아니라 미래가 없던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희망을 심어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렇듯 봉사나 기부를 통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일이 이제까지는 특정한 몇몇 분들의 희생정신에 바탕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변하는 것 같다.

한 예로 지난해 11월 ISO 26000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루는 국제표준이 제정·공포되었다.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향후에는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국제 입찰이나 글로벌 시장 진입 등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쓰여질 전망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도 이익창출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벌써 몇 해 전부터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개 연방정부에서 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는 법까지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IBM이나 소니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소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사의 제품을 분해하게 한 뒤, 제품 개발자와 함께 토론했다. IT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IBM은 어린이용 컴퓨터 키즈스마트를 비영리 유아교육기관에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구조 및 지역사회 기부 등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전이나 물품 기부 등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즘에는 재능기부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으로, 아니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밥을 해주는 것으로 기부를 대신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여러 나눔 활동 중에서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사람의 재능을 키워준다거나 산업적인 발

#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의 토대가 되는 등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IT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참여형 '프로보노 IT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 예이다. 대가나 지원 없이 기업에 다니는 멘토가 대학생인 멘티에게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개념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프로보노 IT멘토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실무능력 향상은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멘토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 기업들에게 '지식나눔'이라는 보다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 국제수준에 맞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사회 공헌은 이제 기업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여러 분야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기왕이면 '프로보노 IT멘토링'처럼 우리 산업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 있는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길 기대한다.